

# 해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동향 연구\*

##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Transition to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in the Field of HSS

이재윤 (Jae Yun Lee)\*\*

정경희 (Kyoung Hee Joung)\*\*\*

### 초 록

본 논문은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주도한 Ling OA와 UP, 도서관이 주도한 OLH와 KU, 출판사가 주도한 S2O모델,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L+F모델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지원 사업 사례로서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였다. 1) 오픈액세스 출판전환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 국가, 대학, 도서관, 학회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오픈액세스 출판비용 부담의 핵심주체는 연구기금지원기관과 도서관이어야 하며, 3)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4) 오픈액세스 학술지 구독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의체 및 국가정보 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5)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한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ecent cases of transition to open access(OA) journal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HSS) in foreign countries to find a way to transition to OA journals in Korea. Ling OA and UP led by researchers, OLH and KU led by libraries, S2O led by publishers and L+F model led by funders and libraries were analyzed. Programs by national funding agencies such as the Norwegian Research Council, Canada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ustrian Science Fund, and Swiss Academ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re also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for transition in Korean HSS field as follows: 1) transitions to open access journals in HSS should be supported at national level 2) the stakeholder in scholarly communications such as the nation, universities, libraries, research funders, scholarly societies etc has their own role in the transition but funders and libraries are the most important in financial support for open access publishing 3) but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first stage of the transition should be done at national level 4) and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consortium comprised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KERIS, KISTI and the national library should be established 5) non commercial publishing platforms for scholarly societies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키워드: 오픈액세스, 인문학, 사회과학, 학술지, 도서관, 연구기금, 오픈액세스 전환

open access, humanities, social sciences, journals, libraries, research fund, transition to open access

\* 이 논문에는 2019년 문헌정보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 논문에는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과제<오픈사이언스의 중심인 오픈액세스의 재단 시범 적용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khjoung@hansung.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8월 27일 ■ 초심사일자: 2020년 9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9월 7일

■ 정보관리학회지, 37(3), 301-326,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301>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최근 Plan S를 비롯하여 공공지원 연구성과물의 오픈엑세스 출판 의무화 정책 추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정책에서는 대부분 완전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학회 출판사의 경우는 오픈엑세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정 손실 우려 때문에 오픈엑세스로의 전환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상업 출판사는 일부 학술지를 오픈엑세스로 전환하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학술지의 구독 수입을 통해 유지 가능하지만, 소규모 학회 출판사는 기껏해야 몇 종 안되는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으므로 충격 흡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사회분야 학회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규모 학회출판사의 형태로 학문 분야별 주요 학술지의 구독 수입에 의존해서 학회 운영비용, 장학금지급 등의 활동을 충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의 지속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북미의 학회출판물 오픈엑세스 전환 추진 협의체인 TSPOA(Transitioning Society Publications to Open Access)의 공동 회장이자 UC Berkeley의 학술 커뮤니케이션국 책임자인 사서 R. Samberg에 따르면 학회들 사이에서 일종의 눈치 게임이 진행 중이어서 “모두가 오픈엑세스 전환을 망설이면서 다른 학회가 먼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Brainard, 2019).

오픈엑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이 어려운 것에 못지않게 유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픈엑세스 학술지에서 다시 유료 학술지로 역전환(reverse

flip)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Matthias, Jahn, Laakso(2019)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9년 초 사이에 152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유료 학술지로 역전환되었고, 그중 95건(62%)이 유료 학술지에서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유료 학술지로 되돌아간 사례였다고 한다. 특히 오픈엑세스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가 유료 학술지로 다시 되돌아간 경우는 대부분이 Elsevier 등 대형 출판사를 통해 유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역전환된 학술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게재논문 수가 연간 20편에서 59편 사이의 소형 학술지의 비중이 컸으며, 특히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는 단 1종을 제외하고 모두 연간 59편 이하의 논문을 게재하는 소형 학술지가 역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Björk & Korkeamäki, 2020)에 따르면 전체 학술지의 18.4%가 오픈엑세스 학술지이며 이 중 41%는 상업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었다. 오픈엑세스 비중은 학문 분야별로 편차가 큰데, 상업출판사 오픈엑세스 학술지 비율은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는 69.4%, 의학은 57.4%로 가장 높고, 예술 및 인문학은 9.1%, 사회과학은 1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해외에서도 인문사회분야 오픈엑세스 출판은 주로 비영리목적의 출판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9월에 유럽 13개국의 16개 연구비 지원 기관이 공공자금 지원으로 발표된 학술논문에 대해서 전면 오픈엑세스 출판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인 Plan S를 공표한 이후, 오픈엑세스

스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46개 주요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들은 Plan S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는 공개 서한을 2019년 2월에 연명하여 발표하였다(HSS Publishers, 2019). 공개 서한에 참여한 출판사들은 과학기술 및 의학 분야 학술지에 맞도록 설계된 계획을 인문사회분야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의도치 않았던 결과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연구자가 APC를 충당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이 일부에만 한정되고, 서평이나 논평을 위한 연구기금은 없으며, 단행본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는 참여 범위와 사용 언어 및 구독 기반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 학술공동체가 소규모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개 서한에 참여한 출판사들이 오픈엑세스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며, 이미 2,100종의 하이브리드 학술지와 160종의 완전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고 오픈엑세스 단행본도 4,100종에 가깝게 출판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문사회분야는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소수의 대형 출판사가 과점하지 않고 중소 출판사, 가족경영 출판사, 분야 특화 출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사가 학술지와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으므로 오픈엑세스 추진에 있어서 Plan S와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이 대안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APC를 주요 수단으로 오픈엑세스를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인문사회분야에 적합한 다양한 출판모델의 모색이 여러 주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오픈엑세스가 곧 APC라고 등치하면 안된다는 입장(Wise & Estelle, 2020)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김규환과 정경희(2017)의 조사에 따르면 KCI 등재지 중 CC 라이선스를 채택한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비중은 의학약 분야가 72%로 가장 높고 자연과학(31%), 농수해양(29%), 공학(24%) 등이어서 과학기술분야는 오픈엑세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문사회분야의 경우는 인문학(0%), 사회과학(1%), 예술체육(1%), 복합학(5%)로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을 논한 신은자(2016)의 연구에서도 주된 초점은 과학기술 분야에 맞추어져 있었다. 결국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를 위한 오픈엑세스 전환 방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 모델을 상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문사회과학 학술지가 KCI 등재(후보)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다양한 오픈엑세스 전환 모델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학술출판 전체의 오픈엑세스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해외 인문사회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픈엑세스 전환 모델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출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글의 2장에서는 다양한 오픈엑세스 출판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인문사회분야에서 학술지를 오픈엑세스로 전환한 실제 사례를 주도 집단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해외의 국가사업 사례를 분석하였고,

5장에서 해외 사례가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전략에 시사하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6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 2. 오픈액세스 출판 비즈니스 모델 유형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셀프아카이빙과 더불어 오픈액세스 실천 전략의 하나로 2002년 BOAI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선언에서 제안되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게재된 모든 논문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구독료나 라이선스 수입으로 충당하였던 출판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BOAI 선언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정부나 대학 및 연구소, 학문 분야나 기관별로 조성된 기부금, 오픈액세스 지지자들의 후원금, 학술지 이외의 추가자료 판매수익, 기존의 학술지 구독료나 액세스비용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도서관의 재원, 연구자들의 자비 등이 모두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비의 자금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원을 다양하게 적용하거나 그 이외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BOAI에서 제안된 이 방안들은 20여 년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나 그중에서 특히 저자의 소속 대학이나 도서관, 연구비 지원기관이 저자를 대신하여 논문출판비(Article Processing Charge, 이하 APC)를 지원하는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오픈액세스 학술지 비즈니스 모델로 여겨졌다. 이는 APC 방식이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며 비교적 쉬운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APC 모델은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이나(Solomon, Laakso, & Björk, 2016) 학문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며(Kozak & Hartley, 2013; Fuchs & Sandoval, 2013)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APC를 지불할 비용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Wise & Estelle, 2019a, p. 4) 이 모델이 적용되기 어렵다. 2020년 6월 현재 DOAJ에서 APC를 부과하는 학술지는 약 27%인데 학문 분야별로는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64.3%, 의학 51.8%인 반면 사회과학은 8.8%, 예술 및 인문학은 4.3%에 불과하다. 2018년 DOAJ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에서는 APC 부과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28%였고(Morrison, 2018), 2014년 데이터 분석에서는 26%였다(Morrison, Salhab, Calvé-Genest, & Horava, 2015). 즉, APC는 더 이상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며 오픈액세스는 곧 APC라는 등식도 성립하지 않는다(Wise & Estelle, 2019b).

APC 모델이 감소하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구독학술지의 증가와 이들 학술지의 이중지불(double dipping)에 기인하기도 한다. 2009년에 약 2,000종이었던 하이브리드 구독학술지가 2016년에는 10,000종으로 증가하였으며(Björk, 2017), 이와 더불어 연구비 지원기관의 APC 지원금액도 급상승한다. 예를 들면 2007~2014년 사이 영국의 연구비 지원기관의 APC 지원은 40,595 파운드에서 1,784,892파운드로 약 44배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상업출판사의 하이브리드 구

독학술지의 APC가 비상업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거의 두 배(Björk & Solomon, 2014)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하이브리드 학술지의 증가와 이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APC 지원은 곧 완전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의 확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Björk & Solomon, 20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기금지원기관은 기존의 APC 기반의 완전 오픈액세스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Earney, 2018).

그동안 APC 모델을 포함하여 오픈액세스 학술지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Solomon, Laakso, & Björk(2016)는 컨소시엄, 보조금,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금 조성 등의 외부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과 회비, 자원봉사, 인쇄본이나 pdf 버전에 비용을 부가하는 프리미엄 방식 등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의 웰컴재단, 영국연구혁신(UK Research & Innovation, UKRI), 학회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 ALPSP)가 공동으로 수행한 PlanS 이행을 위한 오픈액세스 전환모델 제안 프로젝트(Society Publishers Accelerating Open access and Plan S, SPA-OPS)에서는 전환모델(Transformative Models), 협력인프라 및 펀딩모델(Cooperative Infrastructure & Funding Models), CC-BY 라이선스를 적용한 즉시공개형 셀프아카이빙(Immediate sharing with CC-BY licence), 논문거래모델(Article Transaction Models), 오픈출판플랫폼(Open publishing Platforms), 기타 수익모델(Other Revenue Models), 변화와 비용절감전략(Strategies for Change and Cost

Reduction) 등 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Wise & Estelle, 2019a). 또한 2018년 인문사회분야 출판, 디스커버리, 배포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유럽지역 포괄적인 인프라인 OPERAS(Open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European Research Area for Social and Humanities)는 Knowledge Unlatched, Open Library of Humanities(이하 OLH), UCL Press 등 오픈액세스 출판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러 출판사와 JISC의 협의체 모임인 OPERAS 오픈액세스 비즈니스 모델 워킹그룹을 통하여 인문사회분야를 위한 10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Speicher, Armando, Bargheer, Eve, Fund, Leão, Mosterd, Pinter, & Souyioultzoglou, 2018). 논문처리비용방식(APC), 프리미엄방식(Freemium), 협력체/연합체방식(Collaboration/Coalition), 공동체방식(Community), 기금방식(Grant), 기부금방식(Endowment), 도서관 자금지원방식(Library Funding), 기관운영비방식(Institutional), 출판대행(Revenue: Services) 방식, 인쇄본 판매방식(Revenue: Sales of print) 등이 그것이다(Giglia, 2019). 이 중에서 3개 모델은 주로 OA 단행본 출판에 적용되며 일부 모델은 실제 사례에서 중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크게 출판비용을 논문별로 부과하는 APC 기반형, 연구지원기관이나 도서관 등 외부로부터 출판비를 확보하는 외부지원형, 광고나 비용절감, 공동체 구성원이 자원활동, 인쇄본 판매 등 조직 내부에서 출판비용을 마련하는 내부조달형으로 구분된다(Solomon, Laakso, & Björk, 2016). SPA-OPS의 논문거래모델, OPERAS의 논문처리비용

〈표 1〉 오픈액세스학술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

구분	Solomon, Laakso, & Björk(2016)	OPERAS WG	SPA-OPS
APC 기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별 비용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처리비용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거래 모델</li> </ul>
외부지원형 (커뮤니티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소시엄</li> <li>• 보조금</li> <li>• 크라우드펀딩</li> <li>• 기부금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체/연합체 방식</li> <li>• 기금방식</li> <li>• 기부금방식</li> <li>• 도서관 자금지원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 모델</li> <li>• 협력인프라 및 펀딩 모델</li> <li>• 오픈출판플랫폼</li> </ul>
내부조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비</li> <li>• 자원봉사</li> <li>• 프리미엄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비 방식</li> <li>• 프리미엄 방식</li> <li>• 공동체 방식</li> <li>• 출판대행 방식</li> <li>• 인쇄본 판매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셀프아카이빙</li> <li>• 변화와 비용절감</li> <li>• 기타수익모델</li> </ul>

방식은 APC기반형에 속한다. 외부지원형은 지원의 주체가 조직, 기관, 도서관 등 결국은 기존의 구독학술지를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 하도록 돕는 지원자 커뮤니티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모델(또는 비용기반(cost-based)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University of California OSC, 2019). SPA-OPS의 협력인프라 및 펀딩모델, 오픈출판플랫폼과 OPERAS의 협력체/연합체 방식, 기금방식과 기부금방식, 도서관 자금지원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조달형에는 SPA-OPS의 셀프아카이빙, 변화와 비용절감전략, 기타 수익모델, OPERAS의 기관운영비방식, 프리미엄방식, 공동체방식, 출판대행 및 인쇄본 판매방식이 포함된다.

인문사회분야를 위하여 제시된 OPERAS의 모델 중에서 외부지원형(커뮤니티 모델)과 내부조달형에 속하는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OPERAS Open Access Business Models WG, 2018).

외부지원형인 커뮤니티모델은 다시 협력체/연합체 방식, 기금 방식, 기부금 방식, 도서관 자금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력체/연합체 방식은 여러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각자의 기술, 인력, 자금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학문 분야별 연합, 도서관 연합, 국가적 연합, 국제적 연합 등 다양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이해 집단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자원을 공유하여 오픈액세스 출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모의 한계, 지속가능성과 모멘텀이 부족하다.

기금 방식은 새로운 오픈액세스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OLH, Andrew W. Mellon 재단이 지원한 다수의 오픈액세스 지원 기금이 있다. 출판 시작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

기부금 방식은 고등교육과 학술출판을 지원하는 독지가의 기부금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MIT Press 등 주로 미국의 주요 대학 출판부에서 사용된다. 기부금 출연으로 출판부 운영비용이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오픈액세스 출판이 가능해지나 안정된 수입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한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부금 방식은 국내에서는 막대한 지정 기부금이 도서관 등에 투입되는 서울대학교 등 극히 일부에서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도서관 자금지원 방식은 출판사가 오픈액세스 자원을 이용할 도서관의 예산을 받아서 출판비용을 충당한다. OLH, Knowledge Unlatched(이하 KU)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존 도서관 구독 절차의 일환으로 시행 가능하며 구독비의 형식으로 자금 지출이 가능하다. APC를 위한 연구비가 부족한 인문사회분야에서 주로 고려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학술지 종수가 제한적이므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내부조달형은 기관운영비 방식과 출판대행 서비스 방식, 공동체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관운영비 방식은 모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출판사업부서가 사업의 일환 또는 주력 사업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을 하는 것으로 주로 모기관의 소속 연구자의 저작물을 출판한다. 주로 유럽 대학 출판부(Göttingen University Press, UCL Press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기관 연구성과물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예산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만 소규모로 가능한 방식이며 확장성이 낮으며 외부 저자를 포용하기가 어렵다.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발행 학술지와 대학 연구소 발간 학술지의 상당수가 기관운영비 방식에 해당된다.

출판대행서비스 방식은 다른 출판사나 기관에 대해 출판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을 활용한다. UCL Press, Ubiquity Press, KU 등 주로 유럽 출판사가 이에 해당한다. 대행사를 통해 출판에 대한 전문 기술과 플랫폼, 비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한

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이 사업이 제대로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전문 기술 및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공동체 방식은 학술 공동체 구성원의 인적 봉사에 기대어 오픈액세스 출판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주로 오픈액세스 단행본 출판에서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학회출판 학술지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모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 인문사회분야 오픈액세스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OPERAS 워킹그룹은 도서관 그룹이나 기관이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합체모델이 증가하고 있고 OPERAS 파트너들이 고려해 볼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SPA-OPS 프로젝트는 그동안 기관이 출판사에게 지출하였던 비용을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위한 지출로 바꾸는 전환모델이 학회출판사에게 가장 적합하며 APC 없는 오픈액세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이나 기관수준의 기금지원, 출판과 호스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Wise & Estelle, 2019a). 이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인데 이들 모델들이 어느 정도는 이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액세스 출판으로의 전환은 연구자나 도서관, 출판사, 연구기금지원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가 주도하고 또 이들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음에서는 각 주체가 주도한 사례 중에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를 분석하되 제3장에서는 연구자, 도서관, 출판사에 의한 전환지원 사례 제4장에서는 국립 연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 사례를 분석한다.

### 3.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사례

#### 3.1 연구자 집단이 주도한 LingOA와 UP

##### 3.1.1 LingOA

1949년에 창간된 권위있는 언어학 학술지 *Lingua*의 편집장과 편집진이 2015년 10월, Elsevier의 반 오픈액세스 정책에 항거하여 동반 사임하였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Glossa*를 창간하였으며, Elsevier는 새 편집진을 선임하여 *Lingua* 출판을 지속하였다. 항거 독립한 편집진은 ARL, CARL 등 북미 도서관계와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를 비롯한 대학계,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새 학술지 *Glossa*를 정착시켜 나갔다.

*Glossa*의 안정적인 출판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2015년에 설립한 비영리재단인 LingOA는 Association of Dutch Universities(VSNU)와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NWO), 그리고 OLH로부터 출연받은 공공 기금으로서, 궁극적으로 언어학자들의 모든 연구성과를 오픈액세스로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LingOA Homepage, n.d.). LingOA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회장단과 참여 학술지 편집장이 모인 위원회가 운영을 책임진다.

LingOA는 *Glossa*와 같은 지원 대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 중에서 별도의 재정 지

원을 받지 못한 저자의 APC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납한다. *Glossa* 게재 논문에 사사표기를 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은 저자는 LingOA가 지원하지 않고 직접 APC를 부담한다. *Glossa*에서 책정한 APC에는 출판비용전체(편집, 웹호스팅, 색인작업, 마케팅, 아카이빙, DOI 등록 등)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오픈액세스 출판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LingOA는 *Glossa*의 사례를 따라서 두 단계로 기존 구독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Rooryck, de Vries, & Eve, 2015). 1단계는 오픈액세스 출판으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전환' 단계로서 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단 기존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오픈액세스 정책을 받아들여 버부하면 전체 편집진이 학술지를 떠나 오픈액세스에 우호적인 출판사와 공정 오픈액세스 원칙(Fair Open Access Principles)에 맞춘 신규 학술지를 창간한다. 신규 학술지의 APC는 한시적으로 대학 연합체와 연구정책 기관이 공공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고 도서관계는 인력을 지원한다. LingOA의 경우 Radboud 대학도서관이 학술지 4종 발행 인력 1인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는 오픈액세스 출판이 정착되는 '안착' 단계로서 신규 학술지에 새로운 인용지수가 산출되어 각종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되며, 도서관 컨소시엄이 지속적으로 APC를 부담한다. LingOA의 경우 OLH가 참여하는 도서관 컨소시엄에서 APC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LingOA 방식은 연구자들의 항거 독립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후에 수학 분야의 MathOA, 심리학 분야의 PsyOA 등과 같은 타 분야의 후발 기금이 뒤를 따랐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Elsevier에서 출판하는 대표적인 계량정보학 학술지인 *Journal of Informetrics*의 편집진이 2017년에 항거 독립한 후 MIT Press를 통해서 *Quantitative Science Studies*를 창간하여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하였다. *Quantitative Science Studies*의 APC는 연구비 지원을 받은 성과논문이 아닌 경우 첫 3년 동안 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인 Technische Informationsbibliothek (TIB)가 대납하고 있다.

LingOA 모델이 가진 장점은 다음과 같다 (Rooryck, de Vries, & Eve, 2015). 첫째, 오픈 액세스 출판 전면화 정책에 맞춘 혁신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전환 모델이다. 둘째, 출판사의 APC 인상 압력에서 벗어난 방식으로서 기존 구독 비용에 비하면 MathOA와 PsyOA에 대한 공공 투자는 7년 이내에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유료 구독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있으므로 구독기관이 출판사와의 빅딜 협상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다. 넷째, 기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것이 신생 경쟁 학술지를 창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다섯째, 분야별 연구자(편집자)들이 밑에서부터 주도하는 변화이므로 확장성이 크다.

반면에 LingOA 모델은 모든 책임을 지는 편집장이 전환 결정을 망설이게 될 수도 있으며, 너무 많은 학술지가 한꺼번에 시도하면 자원/인력 등의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야 내 연구자 사회가 편집장과 편집진에게 오픈액세스 전환을 요구하면서 기존 성공사례를 근거로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성공 사례를 통해 비용-효과면에서 유리함을 입증하여 OLH와 같은 도서관 컨소시엄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Rooryck, de Vries, & Eve, 2015). 특히 오픈 액세스 전환에 투자한 비용 이상으로 구독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독기관과 재정권을 가진 상급 부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3.1.2 Ubiquity Press

유비쿼티 프레스(Ubiquity Press, UP, <https://www.ubiquitypress.com>)는 2012년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연구자들이 학술지와 대학출판물 오픈액세스를 지지하면서 설립한 출판사이다. UP는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을 중앙 집중화하여 전체적인 출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Eve, 2014, p. 4) 2장에서 언급한 OPERAS 비즈니스 모델 중 출판대행 방식의 사례로 제시된 바 있다. UP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대학과 학회기반 학술지 출판을 지지하면서 이들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체 출판할 수 있도록 유비쿼티 파트너 네트워크(Ubiquity Partner Network, UPN)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UP는 LingOA가 개발한 공정한 오픈액세스 조건(Fair Open Access Conditions)에 부합하는 출판사로서 LingOA의 4개 학술지(*Glossa*, *Laboratory Phonology*, *Journal of Portuguese Linguistics*)를 출판하고 있고 OLH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모든 논문과 도서에 CC-BY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출판한다는 것, UPN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개방한다는 것, UP의 학술지를 번들상품의 일부로 절대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는 3대 정책을 담은 “유비쿼티 헌장(The Ubiquity Charter)”을 발표하기도 하였

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편집업무 아웃소싱을 할 경우 아웃소싱업체가 인종, 젠더, 연령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의 능력개발에 투자해야 하며, UP도 아웃소싱업체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착취적인 가격협상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https://www.ubiquitypress.com/site/about-faqs/>). 이러한 원칙은 저렴한 비용으로 학술지를 출판하기 위하여 학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 무임금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편집실무노동을 부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인력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내 학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UPN 학술지의 표준 APC는 £400(c.€450, \$550)이며 저자와 기관, 기금지원기관에 신뢰를 주기 위해 APC에 포함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UPN은 회원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회원의 연회비는 £2,000이며, 회원 도서관에 UPN의 모든 학술지와 단행본을 포함하여 UPN 회원들의 오픈엑세스 콘텐츠로 구성된 컬렉션을 도서관에 제공한다. 또한 UPN에서 출판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MARC 레코드, 이용보고서, 신규콘텐츠를 연 4회 갱신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회원제도는 도서관이 UPN의 모든 학술지와 단행본을 수집하도록 도와주고 이용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회비는 UPN의 공공플랫폼 개발 및 유지비용, 펀드가 없는 저자에 대한 APC 감면, 개발도상국을 위한 호스팅 비용으로도 활용된다. 2019년 7월 현재 컬렉션에는 인문, 예술, 사회, 의학, 과학, 공학, 기술 분야의 609개 학술지가 출판되고 있다.

UP는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그것이 창간이든 아니면 기존 구독학술지의 전환이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LingOA처럼 이를 주도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집단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하는 파트너출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의학분야의 오픈엑세스 전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 단체인 한국의학편집인협회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단체에서 오픈엑세스 학술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UP처럼 공정한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표방하며 의학분야 학술지 출판을 지원하는 파트너출판사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문학 분야는 오픈엑세스 전환을 주도하는 그룹이 최근 형성되었다. 인문학 분야 학회들로 구성된 이 단체가 오픈엑세스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UP와 같은 파트너출판사와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 3.2 도서관이 주도한 OLH와 KU

### 3.2.1 Open Library of Humanities

OLH는 인문학 분야의 출판생태계가 과학기술분야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인문학 분야의 연구성과는 연구비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자가 부담하는 APC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금을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모아서 학술지에 분배하는 도서관 파트너십 보조금(Library Partnership Subsidy)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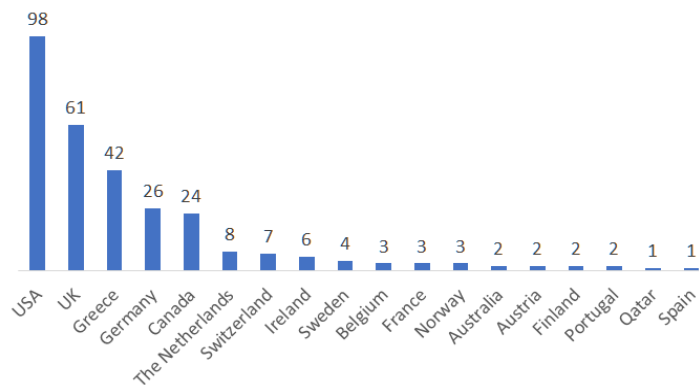
발하게 되었다(OLH, n.d., <https://www.openlibhums.org/>).

OLH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초기에 Andrew W. Mellon 재단의 지원으로 오픈액세스 출판 플랫폼을 개발하여 2015년 9월에 운영하기 시작했다으며, 인문사회분야 비영리 오픈액세스 출판사 기능과 동시에 기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참여기관의 연회비로 도서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도서관은 500유로에서 1500유로 사이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OLH와 연계된 학술지의 APC 대납에 사용된다. 참여 도서관은 기존 구독 예산을 APC 지원 예산으로 변경하여 OLH에 보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OLH는 공정 오픈액세스 원칙을 준수하는 출판사와 협력하여 기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구독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APC 지원 대상 학술지는 참여 도서관이 투표하여 선정한다. 또한 OLH 자체 출판 플랫폼으로 메가 학술지 1종을 포함한 18종의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기도 하다(Edwards, 2016).

OLH의 참여기관은 고등 후원기관(higher

supporters)과 정규 후원기관(regular supporters)으로 구분된다. 고등 후원기관은 연회비가 정규 후원기관의 2배 이상인 3개 기관이며 오스트리아의 Academy of Fine Arts와 FWF (The Austrian Science Fund), 그리고 영국의 University of Edinburgh가 해당된다. 정규 후원기관은 O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Open Library of Humanities Supporting Institutions, n.d.)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미국 98개 기관, 영국 61개 기관 등 총 295개 기관으로서 국가별 현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2019년 4월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후원기관이 16개국 234개 기관이었는데, 이후 약 1년 만에 61개 기관이 추가로 가입하였고 국가로는 그리스와 스페인 기관이 추가되었다. 특히 그리스는 2019년 4월에는 후원기관으로 가입한 곳이 전혀 없었으나 1여년 사이에 그리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Greece)을 비롯한 42개 기관이 가입하였다. 이로써 그리스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기관이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국립도서관 중에서는 네덜란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그림 1> 국가별 OLH 정규 후원기관 수(2020년 5월 현재)

Netherlands)이 2019년 11월에 OLH에 먼저 가입한 바 있다(Vega, 2019).

### 3.2.2 Knowledge Unlatched

KU는 2012년부터 인문학 분야 단행본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도서관과 기관들이 만든 협력체이다. 2017년부터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모델도 운영하고 있다. KU는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학술지를 모집한 후 사서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KU Selection Committee)를 통하여 최종 전환대상 학술지를 선정하여 컬렉션을 만들고 이들 학술지의 전환에 투자할 도서관을 모집한다. 모집 시에는 전환대상 학술지, 전환 기간, 최소 참여기관 수, 참여기관이 투자해야 할 연간 비용을 공개한다. KU는 인문사회분야에서 오픈액세스 출판은 지속적인 기금지원이 필요하고 개별 저자에게 APC가 부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서들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Wise & Estelle, 2020) 사서들은 전환대상이 되는 학술지를 선정함으로써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KU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려는 학회 및 출판사와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지원하려는 도서관을 연결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학술지의 선정, 도서관이 지원해야 할 비용과 최소 참여해야 할 기관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안무형 전환모델(choreographed transition model)로 불리기도 하며(Wise & Estelle, 2020) 도서관, 콘소시엄, 기금지원기관으로부터 전환비용을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클라우드펀딩 모델로 분류되기도 한다(Giglia, 2019).

2017년에 시작한 3년 연속 파일럿 프로젝트인 'KU Select 2017 HSS'는 16개의 인문사회

과학 학술지를 2018~2020년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APC 없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였으며 올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추가로 3년간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NSR Editorial, 2020). 'KU Select 2018 Journals'(https://www.knowledgeunlatched.org/ku-select-2018-journals/)는 인문사회분야 3개 학술지와 STEM 분야 4개 학술지에 대한 2019~2021년간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KU Journal Flipping 2019 Collection'은 10개 출판사의 50개 학술지를 APC 없는 완전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한다는 계획 하에 최종 7개 출판사의 21개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2020년에는 현행 시스템의 장점을 취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오픈액세스 이니셔티브인 Libraria와 연합하여 Berghahn 출판사의 인류학 분야 13개 학술지를 S2O(Subscribe-to-Open: 공개조건구독)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2020~2022년간 진행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시작하였던 기금조성을 S2O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속적인 오픈액세스 출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https://www.berghahn-journals.com/page/boa-faq/).

KU 모델은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MDPI)와 같은 강력한 성장 목적을 지닌 완전 오픈액세스 출판사보다는 전통적인 출판모델을 가진 구독학술지나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적합하다(NSR Editorial, 2020). 즉 비상업적 출판사의 APC 없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다이아몬드 오픈액세스 학술지(Fuchs & Sandoval, 2013)를 위한 출판모델이기도 하다. 이 모델에서는 전 세계 사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전환대상 학술지를 선정한다는 점이 다

른 사례와 구별된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자관이 구독할 학술지를 사서가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번들판매방식으로 학술지 DB라이선스를 구입하면서 사라졌던 사서의 고유한 역할이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한 부분이 복원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 3.3 출판사가 주도한 S2O 모델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에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무런 기여 없이 무임승차하는 기관이다(Eve, 2014, p. 75). 다수의 기관이 지원에 참여하여 학술지가 오픈액세스로 전환되면, 가만히 앉아서 구독비 절감의 이득을 함께 누리면서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독기관이 있게 된다. 문제는 구독비의 상당 비율이 절감되더라도 무임승차를 지속하는 기관이 있으면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지원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구독기관들이 학술지 구독 예산을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Eve(2018)는 든든한 구독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학회 학술지에 한해서 게임 이론에 기반을 두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오픈액세스 전환 방식을 이론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학회가 OLH와 같은 도서관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완전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것을 구독 기관에 알리고, 구독을 지속할 경우 3% 정도의 구독비 할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되, 기존 구독 기관 중 90% 이상이 완전 오픈액세스 전환에 동의할 경우에만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안된 방안을 3년 동안 유지한 후 구독 기관들의 90% 이상이 오픈액세스 유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비를 3% 인상하여 다시 유료 구독 방식으로 되돌리도록 한다. 이 아이디어는 10% 이상의 도서관이 무임승차를 선택하는 순간 오픈액세스가 취소되고 기존 구독료로 환원되므로 개별 도서관이 무임승차를 포기하고 구독료 할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장치가 된다

Eve(2018)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출판사가 기존 구독기관의 구독 유지를 조건으로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모델을 채택한 출판사인 Annual Reviews는 이를 공개조건구독(Subscribe to Open: S2O)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Michael, 2019). S2O 모델에서는 오픈액세스 전환을 조건으로 구독비를 약간 할인하되, 1개 기관이라도 무임승차를 위해 구독에서 빠지면 오픈액세스 전환을 취소하고 종전 구독료로 환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북미 출판사에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특정 영역에서 확고한 구독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시도하고 있다.

Annual Reviews는 다수 분야의 핵심 리뷰 학술지들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초청 원고가 대부분인 리뷰 학술지의 특성상 APC 방식을 채택할 수가 없어서 대안으로 S2O를 최초로 시도한 출판사이다. 생명과학, 자연과학, 물리학, 정치학, 공중보건 분야 대표 리뷰 학술지 5종을 2020년까지 S2O 방식으로 전환 중이며, 한 종은 이미 2017년에 시험 전환하고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Annual Reviews 출판사의 S2O 모델 적용 방식은 기존 구독기관에게 공개조건 구독 갱신 계약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Annual Reviews

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기존 구독 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하더라도 APC를 비롯한 기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기존 구독료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독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일부 기관이라도 무임승차를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구독료 수익이 출판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학술지는 구독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기존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무임승차를 결정한 기관도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1년 동안의 이용 통계 분석을 통해 비구독 기관 중에서 활발하게 이용한 기관에 대해서 S2O 프로그램에 신규 참여하도록 요청한다(Crow, Gallagher, & Naim, 2020).

Berghahn Books는 2019년 4월, 인류학 분야 연구자, 학술단체, 도서관, 기금기관이 오픈 액세스 전문가와 함께 MIT에서 오픈 액세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가지고 S2O 방식의 추진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그후 Berghahn Open Anthro라는 S2O 구독 패키지(BOA-S2O)를 개발하고 13종의 인류학 학술지 전체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기 위해 구독기관과 2019년 가을 구독갱신협상을 진행하였다. BOA-S2O에서는 S2O 1년 구독에 5% 할인을 제공하고 3년 구독에는 15% 할인을 제공한다(Knowledge Unlatched, 2019).

이밖에 Coalition Publica는 50종의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를 캐나다 전문도서관협회를 대표하는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과의 협상을 통해 오픈 액세스로 전환 중이며, Brill Publishers는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일부를 2021년부터 S2O 방식으로 시험 전환할 계획이다.

S2O 프로그램은 기금 지원 형식이 아니고 구독 형식이므로 기존의 도서관 예산을 활용한 수서 예산 배정과 조달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오픈 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구독 기관이 직면하는 절차상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S2O 모델은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오픈 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공공 기금의 주도가 우선되는 경우와 달리 미국처럼 공공 기금보다는 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의 직접 협상을 통해 전환이 진행되는 경우에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 3.4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L+F 모델

최근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금 기관과 학술지를 구독하는 도서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여 오픈 액세스 출판을 완성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Willinsky와 Rusk(2019)는 Scoap3와 같은 도서관 지원 모델과 eLife와 같은 기금기관 지원 모델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생명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도서관계와 기금기관 양측의 지출비용을 시험적으로 산출해보고 양측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충분한 출판비용이 도출되기도 남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주도한 Willinsky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계가 주도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추구하고자 모인 연구자들의 협력체인 Libraria의 운영위원이다. Willinsky(2019)는 동일한 내용을 MIT에서 열린 인류학 분야 오픈 액세스 진흥 워크숍과 프랑스에서 열린 ELPUB 2019

컨퍼런스에서 “Library + Funder” (L+F)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인류학을 비롯한 인문사회분야 오픈액세스 출판에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하였다.

L+F 모델의 핵심 내용은 연구비 지원 기관이 기금지원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의무적으로 오픈액세스 출판하도록 요구하고, 기금지원을 받지 않은 나머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출판비용은 구독기관이 기존 구독료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여러 재정지원 사업의 핵심 요소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정보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체 생태계에서 과학기술분야는 연구비 지원의 비중이 크고, 인문사회분야는 학술지 구독비용의 비중이 크다는 차이가 있으나 기금기관과 구독기관 중 어느 한 쪽의 역할만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으로의 전환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L+F 모델은 학술연구 성과물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종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L+F 모델을 인문학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MIT 워크숍에서 Willinsky가 Libraria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발표한 사례이다. 2019년 4월 24일 MIT에서 열린 인류학 분야 오픈액세스 촉진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유럽과 북미의 출판사, 도서관, 연구기금기관, 학술지, 학회 등의 이해당사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인류학 분야 학술지 전체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Libraria 측이 제안한 L+F 모델이 논의되었다(Paxson, 2019).

MIT 인류학과의 Paxson(2019)은 연구자 집단의 입장에서 이 모델의 주요 장점은 현재 오픈액세스 출판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즉 출판인력의 저임금노동 및 봉사자의 착취, 그리고 저자와 지원 기관이 기꺼이 APC를 지불하는 선의를 출판사가 악용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독점 계약을 피함으로써 L+F 모델이 확실한 예산 투명성과 관련 데이터의 공개를 보장한다고도 언급하였다.

MIT 워크숍에서는 L+F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연구기금 기관을 동참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논의되었다. 인류학 분야의 경우 연구지원 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내부 사정도 제각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민간 연구재단의 경우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연구비 지원에 더해 출판비용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NSF나 NIH와 같은 경우는 현행 지원 방식이 보조금이나 협약, 또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개별 학술지와 협력하려면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Paxson, 2019).

#### 4.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출판 지원 국가사업 사례)

##### 4.1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NRC

노르웨이 연구위원회(The Norwegian Research

1) 4장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과제 <오픈사이언스의 중심인 오픈액세스의 재단 시범 적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의 3.2장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

Council)가 지원하는 노르웨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출판 지원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인 인쇄본 출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 학술지 대부분은 학회출판 학술지 겸 구독 학술지였다. 전자출판이 일반화되면서 자국어(노르웨이어)로 자국 문화를 연구하는 노르웨이 인문학 학술지는 국민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게끔 지속적으로 공개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에 이르러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10여 년간 운영하던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오픈액세스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Openaccess.no, 2019). 그와 함께 국내 학술출판 환경에 대한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인문학 분야 학술출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2017년 백서(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7)로 발간한 직후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지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노르웨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채택한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 지원 방식은 공개조건 구독(Subscribe to Open: S2O) 컨소시엄 방식이며, 컨소시엄이 노르웨이 교육연구부를 대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는 자국 내 가장 큰 4개 대학과 협의하여 컨소시엄에서 자국의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기존 구독비용을 오픈액세스 지원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다른 고등교육기관도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자국 오픈액세스 학술지 구독 국가 컨소시엄 시범 사업을 2017년에 공고하고 희망학술지의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2018

년부터 3개년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원신청이 가능한 학술지는 동료심사를 거치는 각 분야의 핵심 학술지로서 저자의 2/3 이상이 노르웨이 기관 소속이고 발행처가 노르웨이 학술기관인 경우이다(Openaccess.no, 2019).

노르웨이의 주요 대학이 포함된 구독기관들은 도서관 컨소시엄 HumSam을 설립하고, 인문학 분야 대표 3인, 사회과학 분야 대표 3인으로 구성된 출판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학술지 선정에 위임하였다. 이 출판위원회는 2017년 가을 41종의 응모 학술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5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술지 대부분은 이전에 학술지 발간지원사업을 받아온 학술지들이었다. HumSam 컨소시엄은 선정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기존 구독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APC가 없는 공개조건 구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Openaccess.no, 2019).

#### 4.2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SSHRC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위원회 SSHRC (Canada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는 기금번호 649 프로그램 Aid to Open-Access Research Journals을 통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7-2008 회계년도에 11종의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였다. 이후 기금번호 651인 Aid to Scholarly Journals (ASJ) 프로그램으로 확대 변경하여 오픈액세스가 아닌 학술지까지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 SSHRC의 정책을 정부의 Open Science



아젠다에 맞추기 위해 오픈엑세스 학술지만 대상으로 하도록 ASJ 기금 지원 공모에 새로운 전제조건을 설정하였다.

2018년에 변경된 ASJ 사업의 주 내용에는 오픈엑세스 모델(전면 오픈엑세스 또는 12개월 엠바고 기간 포함)의 채택, 캐나다 비영리 콘텐츠 및 유통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학술지에 대한 자금 및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전 오픈엑세스 학술지 또는 엠바고 유지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학술지
- 2년 이내에 오픈엑세스로 전환예정인 학술지
- APC를 받지 않는 학술지에는 논문 당 지원 금액을 더 높임(850달러에서 1,050달러로)
- 학술지 혁신과 캐나다 소재 비영리 출판 플랫폼 이용을 위해 연간 5,000달러를 지원
- 편집진의 1/3 이상이 캐나다 기관 소속이거나, 학술지 발행기관이 캐나다 비영리 기관일 것

지원 금액은 한 학술지당 연간 3만 달러 이내이며, 별도로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5천 달러를 추가지원한다. 이용 가능한 캐나다 국내 출판유통 플랫폼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캐나다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출판 및 유통과 관련한 통합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20종 이상의 학술지를 서비스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2018).

변경된 내용에 따른 ASJ 2018년 사업은 2018년 6월 말에 사업을 공고하고 9월까지 신청받

은 후 2019년 3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원대상 학술지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Aid to Scholarly Journals Selection Committees: June 2018 Competition를 5개 분야별로 6~8명으로 구성하고(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2019), 위원별로 세 영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가장 평균한 결과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역별 평가 점수가 만점의 절반 이하이면 과락으로 간주하여 선정하지 않고 있다.

ASJ 2018 사업 선정 결과 129종의 학술지에 총 341만8천287달러가 지원되어서 한 종 당 평균 2만6천498달러가 지원되었다. 지원받은 학술지 측에는 회계 투명성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출판비 내역 항목으로 편집위원이 아닌 지원인력의 인건비, 내용편집비, 조판편집비, 마케팅비, 출판유통사업비, 인쇄발송비, 기술지원비, 직원훈련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 4.3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FWF

2012년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FWF(Austrian Science Fund)는 연방과학연구부 BMWF(Federal Ministry of Science and Research)와 함께 인문사회분야의 혁신적인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위한 스타트업 기금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지원 프로그램에는 새로 창간되는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오픈엑세스로 전환하려는 구독기반 학술지가 응모할 수 있으며 기존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기금출연의 목적은 기금 지원 기간인 36개월 이내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지속가

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지원프로그램의 기금은 약 50만 유로였으며 한 학술지 당 최대 5만 유로 이내로 제한했지만, 특별히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한 경우에는 10만 유로까지 허용하였다. 2013년 4월에 36종의 학술지가 지원의사를 밝혔고 이중에서 FWF 위원회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9종 학술지에 대해 본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전체 사업 결과는 2018년 보고서로 제출되었다(Reckling, Rieck, & Scherag, 2018).

FWF는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전체 학술출판 시장이 소수의 상업용 출판사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을 명심하고 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FWF가 유럽의 다른 오픈액세스 추진 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Open Access Infrastructure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4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다(Reckling, Rieck, & Scherag, 2018). 첫째, 연구 기관, 학회 및 자금 지원 기관은 독립적인 학회 간행 학술지에 학술출판 지원 예산의 더 많은 비율을 장기간 보장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편집업무와 출판실무를 분리하여 연구자들이 논문 수준 관리 및 최고의 논문 선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출판 기술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전문 인프라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비용 효율적인 출판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출판기관이 기술 및 관리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학회/연구소나 자금지원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비용 분담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공개

적인 출판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 4.4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 SAHS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 SAHS(Swiss Academ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는 75종의 자국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와 총서 발행을 지원해왔다. 기존 사업에서 SAHS는 총 4백1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 학술지 운영비용의 25% 정도 수준이다. 지원받는 학술지는 운영비용의 절반 정도를 구독료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APC를 채택한 학술지는 없었다. 그러나 SAHS의 기존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인문사회과학 학술지가 APC 없이 지속가능한 오픈액세스 출판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행본 출판의 경우 별도 기금사업이 진행된다(Immenhauser, 2019).

SAHS는 2019년에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를 위한 오픈액세스 기금으로 Platinum Open Access Fun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총 7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여 15종에서 20종 정도의 인문사회과학 학술지가 APC에 의존하지 않고 오픈액세스 출판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 학술지 당 운영비용을 1만5천에서 2만 스위스프랑으로 추정(인쇄비는 제외)하고, 편집위원회의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 SAHS는 기금 출연자금의 장기적인 조달 방법으로 오픈액

세스를 위한 공공자금 출연과 함께 OLH나 Scope3와 유사한 컨소시엄 방식도 모색하고 있다(Immenhauser, 2019).

## 5.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앞에서 살펴본 해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자국의 문화와 학술발전을 위해서 국내 학술지를 위한 국가적인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국내 연구자가 자국어로 발행하는 학술지가 오픈액세스로 발행되도록 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학술연구자가 자국어로 자국의 사회문화를 연구하여 출판한 학술논문을 자국민들이 장벽 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둘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오픈액세스 학술지 지원사업에 국가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등 국가기관, 대학 등 구독기관, 국내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가 함께하며, 사업대상 학술지의 선정을 위해서 연구자 집단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L+F 모델도 인류학 분야의 연구

자, 기금기관, 학회, 출판사 등이 함께 논의하여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마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하듯이 하나의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도서관, 출판사, 기금기관, 국가 등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온 주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비용 부담에 있어서 이미 학술연구 진흥과 학술지 구독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오픈액세스 정책과 지원사업을 통해서 적절히 역할을 나뉘야 한다.

셋째,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없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모델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픈액세스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완전 오픈액세스 전환 사례에서는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경우에 도서관은 무임승차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HumSam 컨소시엄이나 L+F 모델에서와 같이 기존 구독비용의 일부를 이용한 비용 지불의 주체가 되고, 때로는 전환 대상 학술지의 선정이나 플랫폼 운영 지원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개별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득하여 공개조건 구독을 위한 HumSam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이들이 기존의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구독비용을 오픈액세스 지원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초창기 미국과 영국의 개별 도서관 중심으로 시작된 OLH 모델도 한꺼번에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42개 기관이 가입한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차원의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FWF나 스위스 SAHS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의 절감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서 대학도서관 협의체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국가 학술정보기관이 나서서 OLH나 HumSam과 같은 오픈액세스 학술지 지원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구독비 절감과 오픈액세스 학술지 확산, 그리고 기관 소속 연구자의 학술논문 발표 지원이라는 일석 삼조의 성과를 동시에 거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요 사례 모델 중에서 공개조건구독 S2O 모델은 기존 학술지 구독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독기반이 확고한 학술지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을 공공 기금이 주도하기보다는 도서관 컨소시엄과 출판사 사이의 직접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 더 적합한 모델이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 구독예산의 압박으로 어떤 학술지라도 구독 취소가 될 위험이 있고,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학회지를 발행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학회나 도서관 측이 오픈액세스 전환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에 S2O 모델을 선제적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 사업이나 컨소시엄 등을 통해서 초기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해서는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의 보급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1997년 개발이 시작되어 1998년부터 운영된 전자도서관 및 전자출판 플랫폼인 SciELO(Scientific Electronic Library Online)로 인해 오픈액세스 출판 비중이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최고인 5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왔다(Hook, Calvert, & Hahnel, 2019). 현재 SciELO network에는 남미 국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SSHRC의 ASJ 프로그램이 자국 내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을 5천 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은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위한 출판유통 플랫폼에 대한 여건이 아직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은 국내의 경우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일곱째, 공공자금을 통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 지원 범위에는 출판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지원받은 학회 출판사는 회계 투명성 기준을 지켜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캐나다의 ASJ 사업에서는 출판비 내역 항목으로 편집위원이 아닌 지원인력의 인건비, 내용편집비, 조판편집비, 마케팅비, 출판유통사업비, 인쇄발송비, 기술지원비, 직원훈련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OLH가 지원하는 LingOA에서도 편집, 웹호스팅, 색인작업, 마케팅, 아카이빙, DOI 등록 등의 출판비용 전체를 출판비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 6. 결론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인문사회과학 학

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다양한 오픈액세스 출판 모델과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모범답안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술출판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특히 기금기관과 도서관의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 MIT 위크숍에서는 도서관과 기금기관이 협력하는 L+F 모델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법적인 제약을 넘어서 기금 기관을 동참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L+F 모델의 장점과 걸림들은 주로 미국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지만 국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의한 학술지 출판지원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오히려 국내 도서관계가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지원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장애가 많다. 미국과 달리 국내 도서관은 기관의 구독비용 중에서 국내 학술지 구독비용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학술지를 개별적으로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일에 도서관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컨소시엄 등을 통한 별도의 인력 지원과 사업역량 집중,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의 초기 재정 지원 등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더라도 구독비용을 오픈액세스 출판지원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재원이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만 개별 구독기관이 타 기관의 무임승차를 감수하고서 자발적

로 앞장서서 오픈액세스 출판지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주된 이유는 오픈액세스 출판지원에 앞장섰을 때 구독비 절감이 단기적으로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설사 소액의 구독비 절감이 가능하더라도 오픈액세스 출판지원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비용에 못지않은 수준의 행정적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기관에 의한 오픈액세스 지원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오픈액세스 출판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직접적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액세스 출판 활성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별 기관에 학술지 구독예산의 절감분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보편적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지원사업과, 학술지 구독기관 컨소시엄 중심의 선택적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지원사업의 두 가지 방향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픈액세스 출판지원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독기관의 입장에서는 OLH와 같이 자관의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대상 학술지의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독기관의 수요에 따른 지원대상 학술지의 선별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보편적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오픈액세스 출판지원사업의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개별 구독기관이 당장 구독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자관의 인

력으로 오픈엑세스 출판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서관계가 이용자이자 연구자집단인 학회와 협력하여 APC 대납 기금을 지원하는 OLH와 같은 모델을 국내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도서관과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오픈엑세스기금의 지원 창구는 도서관과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이 포함되는 대학 연합체와 정부출연연구소가 포함되는 정부 연구정책 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육협의회, 과기정통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들 수 있다. 이들이 기금 지원을 해야 하는 명분은, 오픈엑세스 출판 지원을 통해 이 기관 산하 기관들의 학술지 구독비가 절감되게 되며 산하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와 학술지 발행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금 지원을 통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출판이 정착된 이후에는 오픈엑세스 출판 지원 관련 예산 창구가 구독 기

관인 도서관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무총리실 등이 산하 기관의 오픈엑세스 지원 예산을 도서관으로 배정하고, 도서관계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서 오픈엑세스 출판 학술지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도서관계가 오픈엑세스 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대상 학술지의 선정, 투고하는 연구자 지원, 오픈엑세스 학술지 발행 학회 지원 등의 서비스가 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오픈엑세스 지원 사업이나 도서관계가 주도하여 구독비를 출판지원비로 전환하는 사업, 또는 이들이 역할분담으로 결합된 사업이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형식의 사업이 되더라도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FWF의 오픈엑세스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장기 지원, 출판노동의 분리, 규모의 경제 추구, 자원의 집적이라는 4가지 원칙은 오픈엑세스 출판 활성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규환, 정경희 (2017).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3), 251-267. <https://doi.org/10.3743/KOSIM.2017.34.3.251>
- 신은자 (2016). 정기구독제 학술지에서 오픈엑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35-53. <https://doi.org/10.4275/KSLIS.2016.50.4.035>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019 학술정보 글로벌 동향. vol.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Björk, B. (2017). Growth of hybrid open access, 2009-2016. PeerJ 5:e3878. <https://doi.org/10.7717/peerj.3878>
- Björk, B., & Korkeamäki, T. (2020). Adoption of the open access business model in scientific

- journal publishing: A cross-disciplinary study. arXiv:2005.01008. Retrieved from <https://arxiv.org/abs/2005.01008>
- Björk, B., & Solomon, D. (2014). Developing an effective market for open access article processing charges. London: Jisc, Research Libraries UK, Research Councils UK, the Wellcome Trust, the Austrian Science Fund,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and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Gravitational Physics. Retrieved from [http://www.wellcome.ac.uk/stellent/groups/corporatesite/@policy\\_communications/documents/web\\_document/wtp055910.pdf](http://www.wellcome.ac.uk/stellent/groups/corporatesite/@policy_communications/documents/web_document/wtp055910.pdf)
- Brainard, J. (2019,9,16). New deals could help scientific societies survive open access. Science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9/new-deals-could-help-scientific-societies-survive-open-access>
- Crow, R., Gallagher, R., & Naim, K. (2020). Subscribe to Open: A practical approach for converting subscription journals to open access. *Learned Publishing*, 33(2), 181-185. <http://doi.org/10.1002/leap.1262>
- Earney, L. (2018). Open access briefing paper: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nch report. Retrieved from <https://scholarlycommunications.jiscinvolve.org/wp/2018/10/22/open-access-briefing-paper-considering-the-implications-of-the-finch-report/>
- Edwards, C. (2016). Building a non-APC business model for humanities journal publishing. Retrieved from <https://oaspa.org/wp-content/uploads/2016/10/Caroline-Edwards-Talk-Virginia-Sept.-2016.pdf>
- Eve, M. P. (2014). *Open access and the humanit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e, M. P. (2018). How learned societies could flip to open access, with no author-facing charges, using a consortial model. Retrieved from <https://eve.gd/2018/01/21/how-learned-societies-could-flip-to-oa-using-a-consortial-model/>
- Fuchs, C., & Sandoval, M. (2013). The diamond model of open access publishing: Why policy makers, scholars, universities, libraries, labour unions and the publishing world need to take non-commercial, non-profit open access serious. *tripleC*, 13(2), 428-443. Retrieved from <https://www.triple-c.at/index.php/tripleC/article/view/502>

- Giglia, E. (2019). OPERAS: Bringing the long tai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to open science. *JLIS.it*, 10(1), 140-156. <http://doi.org/10.4403/jlis.it-12523>
- Hook, D., Calvert, I., & Hahnel, M. (2019). *The ascent of open access: An analysis of the open access landscape since the turn of the millennium*. London: Digital Science. Retrieved from <https://www.digital-science.com/blog/news/the-ascent-of-open-access-report/>
- HSS Publishers (2019.1.25). *An HSS perspective on Plan S*. Retrieved from <https://plansinhss.home.blog/>
- Immenhauser, B. (2019). *Funding of platinum open access journals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Poster for Swiss Open Science Action Plan: Kick-Off Forum, October 17 2019, EPFL. <https://doi.org/10.5281/zenodo.3450380>
- Knowledge Unlatched (2019). *Berghahn Open Anthro: Berghahn pilots new open access model in anthropology*. Retrieved from <https://knowledgeunlatched.org/wp-content/uploads/2019/09/At-a-glance-Berghahn-Open-Anthro-English-2.pdf>
- Kozak, M., & Hartley, J. (2013). *Publication fees for OA journals: Different disciplines-different method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 2591-2594.
- LingOA Homepage. Retrieved from <https://www.lingoa.eu/>
- Matthias, L., Jahn, N., & Laakso, M. (2019). *The two-way street of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Flip it and reverse it*. *Publications*, 7(2), 23. <https://doi.org/10.3390/publications7020023>
- Michael, A. (2019). *Subscribe To Open: Annual Reviews' take on open access*. Posted on The Scholarly Kitchen (APR 2, 2019). Retrieved from <https://scholarlykitchen.sspnet.org/2019/04/02/subscribe-to-open/>
- Morrison, H. (2018). *DOAJ APC information as of Jan 31, 2018*. Retrieved from <https://sustainingknowledgecommons.org/2018/02/06/doaj-apc-information-as-of-jan-31-2018/>
- Morrison, H., Salhab, J., Calvé-Genest, A., & Horava, T. (2015). *Open access article processing charges: DOAJ survey May 2014*. *Publications*, 3(1), 1-16. <https://doi.org/10.3390/publications3010001>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7). *The Humanities in Norway: Meld. St. 25 (2016-2017) Report to the Stort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s://www.openaccess.no/english/humanities-norway.pdf>



- NSR Editorial (2020). Knowledge Unlatched renews two successful open access collections, ensuring sustainability of open research worldwide. Retrieved from <http://www.noshelfrequired.com/knowledge-unlatched-renews-two-successful-open-access-collections-ensuring-sustainability-of-open-research-worldwide/>
- Open Library of Humanities Homepage (n.d.). Retrieved from <https://www.openlibhums.org>
- Open Library of Humanities Supporting Institutions (n.d.). Retrieved from <https://www.openlibhums.org/plugins/supporters/>
- Openaccess.no (2019). Norwegian open journals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 consortium for Norwegian SSH OA journals. Retrieved from <https://www.openaccess.no/english/humsam/>
- OPERAS Open Access Business Models WG (2018). Retrieved from <https://operas.hypotheses.org/aboutoperas/working-groups/business-models-wg>
- Paxson, H. (2019). Q&A: Heather Paxson on a new model for open-access publishing in anthropology. MIT News (May 10, 2019). Retrieved from <http://news.mit.edu/2019/mit-heather-paxson-open-access-model-workshop-0510>
- Reckling, F., Rieck, K., & Scherag, E. (2018). Report on the FWF Open Access Journal Funding Initiative. <http://doi.org/10.5281/zenodo.1433993>
- Rooryck, J., de Vries, S., & Eve, M. P. (2015). Open access models for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Retrieved from <http://www.lingoa.eu/wp-content/uploads/2015/10/LingOA-model-LERU.pdf>
-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2018). Aid to scholarly journals. Retrieved from [https://www.sshrc-crsh.gc.ca/funding-financement/programs-programmes/scholarly\\_journals-revues\\_savantes-eng.aspx](https://www.sshrc-crsh.gc.ca/funding-financement/programs-programmes/scholarly_journals-revues_savantes-eng.aspx)
-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2019). Aid to scholarly journals selection committees: June 2018 competition. Retrieved from [https://www.sshrc-crsh.gc.ca/funding-financement/merit\\_review-evaluation\\_du\\_merite/selection\\_committees-comites\\_selection/journals-revues\\_2018-eng.aspx](https://www.sshrc-crsh.gc.ca/funding-financement/merit_review-evaluation_du_merite/selection_committees-comites_selection/journals-revues_2018-eng.aspx)
- Solomon, D., Laakso, M., & Björk, B. (2016). Converting scholarly journals to open access: A review of approaches and experiences. Retrieved from <http://nrs.harvard.edu/urn-3:HUL.InstRepos:27803834>
- Speicher, L., Armando, L., Bargheer, M., Eve, M. P., Fund, S., Leão, D., Mosterd, M., Pinter, F., & Souyiultzoglou, I. (2018). OPERAS open access business models white paper. <https://doi.org/10.5281/zenodo.1323707>

- University of California OSC (2019). Guide to transitioning journals to open access publishing. Retrieved from <https://osc.universityofcalifornia.edu/wp-content/uploads/2019/02/UC-OSC-Guide-to-Transitioning-Journals-to-OA.pdf>
- Vega, P. C. (2019).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joins OLH LPS model. Retrieved from <https://www.openlibhums.org/news/353/>
- Willinsky, J. (2019). If, alongside libraries, funders pulled their weight: A study in universal open access. ELPUB 2019 23rd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Publishing, Jun 2019, Marseille, France. Retrieved from <https://elpub.episciences.org/5561/pdf>
- Willinsky, J., & Rusk, M. (2019). If research libraries and funders finance open access: Moving beyond subscriptions and APC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80(3), 340. <https://doi.org/10.5860/crl.80.3.340>
- Wise, A., & Estelle, L. (2019a). How libraries can support society publishers to accelerate their transition to full and immediate OA and Plan S. *Insights*, 32(1), 23. <http://doi.org/10.1629/uksg.477>
- Wise, A., & Estelle, L. (2019b). Society publishers accelerating open access and Plan S (SPA-OPS) project. Wellcome Trust. Collection. <https://doi.org/10.6084/m9.figshare.c.4561397.v2>
- Wise, A., & Estelle, L. (2020). How society publishers can accelerate their transition to open access and align with Plan S. *Learned Publishing*, 33(1), 14-27. <https://doi.org/10.1002/leap.1272>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Kim, Gyuhwan, & Joung, Kyoung Hee (201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pen access in Korean scholarly journals: Focused on KCI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251-267. <https://doi.org/10.3743/KOSIM.2017.34.3.251>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9). 2019 Global Trends on Scholarly Information. vol. 7. Daegu, Korea: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Shin, Eun-Ja (2016). A study on flipping subscription journals to open acc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35-53. <https://doi.org/10.4275/KSLIS.2016.50.4.035>